

기고

농업 생산기반 정비, 충북이 앞장

이 용 만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부장



한국농어촌공사는 충북도 전역에 걸쳐 저수지 187개소, 양수장 230개소, 배수장 39개소, 양배수장 9개소, 취입보 548개소 등 총 1천13개소 수리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충북 농업의 생

명선이자 농업 생산 기반 핵심 요소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로, 구조적 보강과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기후 변화에 따른 강우 패턴 변화와 시설 성능 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비가 절실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충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을 통해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기반 재구축하고자 한다.

현재 충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청지구(보은군 삼승면)와 중석지구(진천군 초평면, 진천읍)를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대상지로 건의했다. 두 지구 모두 퇴수 재이용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보청지구는 수리불안전담 156ha를 포함한 193.3ha에 대해 스마트 관수로, 팜폰드, 저류지 등을 조성해 물 사용 효율을 높이려 하며 중석지구 역시 퇴수 재활용을 위한 양수장과 팜폰드를 설치해 기설시설 취약한 용수공급을 보완하고, 타작물 용수공급 기반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이 최종 선정될 경우 충북 농업 물 관리 체계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재편사업은 단순한 구조물 보수 수준을 넘어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용수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단일 수계 중심 공급 구조를 탈피해 여러 수원을 연계하고 저장·재이용이 가능한 유기적이며 스마트한 통합 용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나아가 충북도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조성사업, 스마트 용수로화, 수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다양한 미래지향형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AI, 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은 농업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청년 농업인 유입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및 수면 태양광 사업은 농촌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화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원남저수지는 에듀팜 관광단지로 개발돼 지역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백곡저수지는 자연 친화적인 수변 공간과 낚시터로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저수지를 레저, 생태관광, 수상 스포츠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농업과 관광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농업 생산기반 정비는 단순한 시설 관리가 아닌 미래 농업을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적 투자다. 충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기술적·행정적 준비를 갖추고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